

현장밀착형 교육정책 개발 앞장

전북교육정책연구소, '2021 현장연구인력풀' 공모... 27일까지 접수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김정기)는 현장밀착형 교육정책 연구·개발을 위해 인력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23일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에 따르면 현장 교원과 일반직의 교육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밀착형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2021 현장연구인력풀'을 공모한다. 현장연구인력풀은 다양한 자문 활동,

연구 활동, 이슈페이퍼 작성 등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고, 전북교육 정책의 방향과 개선점을 분석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전북지역 유·초·중·고 교원 및 일반직 직원으로 교원은 교육학 등 사회과학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

사 수료자 일반직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면 지원이 가능하다. 현장연구인력풀을 희망하는 교원이나 일반직은 교육·연구활동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해 오는 27일 오후 5시까지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6

일 대상자를 선정·안내하고,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정기 소장은 "교육정책 개발 및 연구에 대한 현장 교원과 일반직의 적극적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구성성을 지닌 교육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교육정책연구에 전문성을 가진 교직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에 대한 정보와 전략을 제공하는 영상을 제작해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수험생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수시면접, 이렇게 준비하세요”

전북대, 수험생에 동영상 안내... 실제 면접 상황·사례 제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에 대한 정보와 전략을 제공하는 영상을 제작해 대입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수험생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립대학 육성사업 일환으로 코로나 19로 면접 준비가 어려운 수험생을 위해 면접 동영상 제작 대학의 메인 홈페이지(<http://www.jnu.ac.kr>) 및 입학정보 홈페이지(<http://enter.jnu.ac.kr>)에 업로드 했다. 특히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수시면접,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란 제목으로 영상을 게재해 전국 고등학교에 안내했다. 제작된 영상 콘텐츠는 10분 분량으로 전북대 학생부종합전형의 실제 면접과 동일하게 대학의 제시문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 학교생활기록부 등의 제출서류에 대한 면접 형식으로 구성됐다. 또한 면접의 잘 된 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비교·제시함으로써 수험생이 어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진행자가 면접 가이드 역할을 하는 V-로그 형식을 구성해 면접의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조인하고 면접 시 유의사항을 전하는 등 수험생의 면접 준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철운 입학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특히, 고교생 눈높이에 맞춰 준비했다”며 “10분만 투자하면 면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알찬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는 24일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서류전형 합격자를 발표, 12월 7일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단계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중등임용시험 응시율 90.3%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21일 치러진 중등교원임용시험 응시율이 90.3%로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치러진 시험에는 접수인원 3,118명 중에 2,815명이 응시했으며, 전년도 응시율 91.7%에 비해 다소 낮은 응시율을 보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일 노랑진 학원발 확진자 발생 속에서 중립 비상대책상황으로 돌입했으며, 교육부 및 보건소 등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해 노랑진 학원 이용 응시생에게 코로나 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다. 노랑진 임용단계 학원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는 음성 확인을 받은 후 도교육청 2층 강당에 마련된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했다. 또 검사를 실시했으나 시험 전까지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응시생은 또 다른 별도 시험장을 마련해 다른 응시생과 분리해 별도로 시험을 진행함으로써 전과 가능성을 차단했다. /장은성 기자



'2020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권역' 포럼이 지난 20일 전주시 풍남호텔에서 열렸다

지역 관광 거점도시 발전 해법 논의

2020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권역 포럼

'2020년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시간여행권역' 포럼이 지난 20일 전주시 풍남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사)지역관광문화발전협의회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com/2020st10v-k>)을 통해 지역 관광·문화·예술, 지자체 관계자 및 관광과 관련한 회원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생중계됐다. 전주대학교 심우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은 1부에서 박형배 전주시 의원이 "전주시 관광 거점도시 발전과 성공을 위해 지역관광문화발전협의회 역할과 기대가 중요하다"며 6가지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제이스와 김영주 대표가 '지역 테마를 엮어 하나의 관광 상품이 아닌 권역의 관광상품을 개발'을 제안했고, 함국 김영명 대표는 '지역 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가 함께 하는 공연이 필요로 하나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크나이프협회 신승훈 상임 이사는 스포츠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치유 관광을 지역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했고, 한국지역개발연구원 안병관 소장은 지역의 축제와 지역의 관광이 함께 연계해 지역 내 방문객을 대상 지역 관광과 축제를 홍보해

너지 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아이워크코리아 김성진 대표는 지역 내 다문화 이주여성 대상으로 이주여성 자국어 홍보를 위한 SNS서포터 역할을 강조했다. (사)지역관광문화발전협의회 류인평 이사장은 이번 포럼에서 "이제는 지역 관광 발전을 코로나와 분리해서 계획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위드(Corona With)로 지역 관광 발전을 논의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업 계획은 Top-Down 사업에서 지역 관광생태계를 고려한 사업 계획을 개발해 중앙에 요청함으로써 사업을 Bottom-up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공학페스티벌 개막... 전북대 진행

27일까지 온라인 개최

전북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선도센터(센터장 이일재)가 전국 공학교육혁신협의회 온라인 개최 '2020 공학페스티벌(E2Festa)'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한다고 전했다. 23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http://www.e2festa.kr>)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학 페스티벌에서 전북대 공학교육혁신선도센터는 언바식 공학 챌린지를 주관한다. 이 프로그램은 전라북도 특화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드론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전국에서 드론 챌린지를 선발해

드론을 조립하고 비행하는 미션을 수행하며 영상을 업로드 하는 도전 릴레이 방식의 프로그램이다. 이와 함께 이번 공학페스티벌에서는 공대 학생들의 창의적 공학 설계 작품 전시와 유망 신산업분야 선배 엔지니어와의 만남, 미래 신산업을 대표하는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엔지니어 토크콘서트, SI기업 오픈클래스, 온라인 해킹 경진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또한 신입생부터 졸업생 엔지니어, 산업계 인사 등이 폭넓게 참여해 계속되는 도전이라는 슬로건에 맞는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